



보도시점

2025. 5. 9.(금) 06:00  
5. 9.(금) 석간

배포

2025. 5. 8.(목) 16:00

## 주요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대한 업계 협조 당부

-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 축산물 소비자물가 안정에 대한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목) 오후 2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세종사무소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및 축산물 수입업체,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최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우는 평년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 감소 등으로 현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한 돼지고기도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도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 소고기의 경우에는 도입단가가 인하되고 있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율 및 국제가격 변동 등 수급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정부가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및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하여 주요 유통업체 등의 축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유통업계와 축산물 수입업계에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 하면서 국내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 <닭고기>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연섭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이재승 (044-201-2336)
			사무관	김정수 (044-201-2332)
			사무관	정훈기 (044-201-2344)
		서기관	이동민 (044-201-233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